

# 분단 현실의 아픔을 위로하는 시간은행

## 한국전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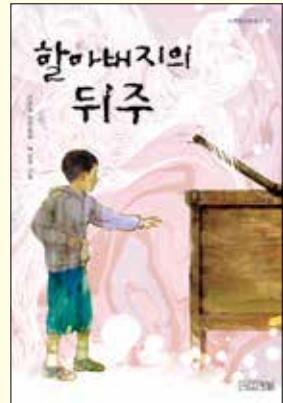
### 5학년 2학기 사회

3. 유교 문화가 발달한 조선 4)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 6학년 1학기 사회

- 3. 대한민국의 발전과 오늘의 우리
- 2) 민족의 상처, 6·25 전쟁
- 3) 자유 민주주의의 시련과 발전

#6·25전쟁 #광주민주화운동 #임진왜란



할아버지의 뒤주

이준호 지음 | 백남원 그림



『할아버지의 뒤주』는 1950년에 일어난 한국 전쟁이 주된 배경입니다. 한국 전쟁 때, 자신의 실수로 북한군에게 큰 형님을 잃고 만 민제 할아버지는 평생 죄책감과 그리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민제 할아버지의 아픔은 한국 전쟁으로 인한 우리 민족의 상처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할아버지는 어린 시절 집 안에 있던 뒤주가 타임머신이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리고는 큰 형님을 잃었던 시간을 찾아 뒤주를 타고 과거로 떠납니다. 그 여행에 합류한 민제 역시 사도세자를 만나고, 임진왜란과 5·18 민주화운동도 목격합니다.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좀 더 들어가 볼까요?

## 책 속에 숨은 역사

### 1. 한국 전쟁이 일어난 이유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는 일제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 뒤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다양한 의견을 가진 지도자들이 의견을 하나로 묶지 못했지요. 결국 한반도의 남쪽은 미군이, 북쪽은 소련이 주둔하면서 북위 38선을 기준으로 분단되었습니다.

남북한은 둘로 나뉜 채 각각의 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남한에서는 자본주의 체제를, 북한에서는 사회주의 체제를 이루었습니다. 남북한은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지 않고, 불신과 반목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 2. 한국 전쟁의 과정과 결과

1950년 6월 25일, 북한은 무력으로 남한을 침공했습니다. 국군은 미리 전쟁 준비를 한 북한군의 공격을 막아 내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낙동강 이남까지 밀리게 되었습니다. 북한을 침략자로 규정한 국제 연합은 남한으로 국제 연합군을 파견했습니다.

1950년 9월 인천상륙작전을 통해 국군과 국제 연합군은 서울을 수복하고 압록강까지 진격했습니다. 그러나 이듬해 1월 중국군이 북한군을 도와 참전하면서 국군과 국제 연합군은 한강까지 후퇴했습니다. 치열한 싸움이 계속되자, 남북한은 1953년 7월 휴전선을 경계로 휴전했습니다.

한국 전쟁은 남북한 모두에게 엄청난 피해를 안겼습니다. 국토는 황폐해졌고, 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쳤으며, 이산가족과 전쟁고아가 생겼습니다. 『할아버지의 뒤주』에 등장하는 민재 할아버지의 상처와 아픔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안타까운 건,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국가로 아직까지도 남한과 북한이 서로 적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 역사의 현장을 찾아서

### 1. 임진각 망배단과 자유의 다리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임진각은 한국 전쟁으로 고향을 잃은 실향민들이 자주 찾는 곳입니다. 판문점과 휴전선 너머 멀지 않은 곳에 고향이 있는데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조금이나마 가까운 곳에서 그리움을 달래기 위해 찾아옵니다.

임진각 망배단은 평화로운 일상과 아름다운 산천의 모습이 조각된 7개의 화강암 병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실향민들은 명절이면 망배단에서 북쪽을 향해 제사를 지내고, 고향에 두고 온 가족들을 향한 그리운 마음을 이곳에서 달랠니다. 가고 싶어도 고향에 갈 수 없는 실향민들의 아픔이 어떠할까요?

망배단 뒤로는 자유의 다리가 있습니다. 남북한이 휴전협정을 맺고 난 후 한국군과 국제 연합군 포로 12,773명이 이 다리를 건너 남한으로 돌아왔습니다. 많은 실향민들은 이 다리를 건너 가족과 친척들이 사는 고향에 가 보길 원합니다.



임진각 망배단

## 2. 철원 노동당사와 월정리역

철원은 북위 38선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해방 직후에는 북한 땅이었지만, 전쟁 후에는 휴전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어 남한 땅이 되었습니다. 이런 곳을 수북 지역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양상한 뼈대만 남은 철원의 노동당사 외벽에 가득한 포탄 흔적은 철원 지역이 한국 전쟁 당시 얼마나 치열한 격전지였는지를 잘 보여 줍니다.

경원선의 간이역이었던 월정리역에는 1950년 6월 금강산을 향해 달리던 기차가 폭격을 맞은 채 멈춰 서 있습니다. 종잇장처럼 무참하게 구겨진 기차 옆에 '철마는 달리고 싶다'는 표지판이 전쟁의 아픔을 몸소 전하고 있습니다.

철원에는 북한이 만들기 시작했으나 전쟁 후 남한이 완성한 승일교도 있습니다. 의도하지 않게 남북한의 합작인 건축물이 되었지요. 한 건축물에서 남북한의 다른 건축 공법을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 3. 창경궁

창경궁은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창덕궁과 함께 동궐로 불리는 조선의 5대 궁궐 중 하나입니다. 창경궁의 편전인 문정전(휘령전) 앞에서 1762년 7월 4일(윤5월 13일) 사도세자는 뒤주에 갇혔습니다. 자신을 반대하는 신하



서울 창경궁

들의 서슬 퍼런 모함과 아버지에게 청천벽력과도 같은 미움을 산 사도세자는 고작 11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 아들(정조)을 두고 무더운 여름날 뒤주 안에서 참혹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창경궁에서 더 많은 영조와 사도세자, 정조의 역사 이야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사도세자가 용꿈으로 정조의 태몽을 꾸는 경춘전, 학문을 사랑한 영조의 이야기가 깃든 송문당, 혜경궁 홍씨가 머물렀던 자경전 터 등을 둘러봅니다.

#### 4. 화성행궁의 뒤주 체험

화성행궁은 수원 팔달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행궁은 궁궐 밖으로 행차한 왕이 잠시 머무는 궁궐입니다. 화성행궁은 수원화성에 온 정조가 머물렀던 곳으로, 어머니 혜경궁 홍씨의 회갑 잔치를 한 곳이기도 합니다.

뒤주는 원래 곡식을 보관하는 궐입니다. 오늘날에는 쉽게 접할 수 없는 살림살이입니다. 화성행궁에는 뒤주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뒤주 체험으로 사도세자의 마음을 느껴 보고, 또 『할아버지의 뒤주』의 민제가 경험한 판타지 세상도 상상해 봅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비극적인 죽음을 목격한 정조는 생전에 하지 못했던 효도를 아버지인 사도세자에게는 물론이고 어머니에게도 헌신적으로 했습니다.



수원 화성행궁

조선의 명당 중 한 곳인 화산 자락으로 사도세자의 무덤을 옮기고, 근처에 화성이라는 신도시를 만들었습니다. 화성행궁 가까운 곳에 위치한 수원화성박물관에서는 정조의 일생, 화성의 가치와 의미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 현장에 다녀와서 무엇을 할까?

### 1. 이산가족의 슬픔 이해하기

한국 전쟁은 남북한 모두에게 엄청난 피해를 안겨 주었습니다. 그중 가장 큰 상처는 사랑하는 가족을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왜 전쟁을 겪어야 하는지도 잘 모르는 평범한 사람들은 전쟁으로 가족을 잃고, 생사도 모른 채 그저 그리워했습니다.

전쟁은 60여 년 전의 일이지만, 그때의 상처는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60여 년 만에 이산가족이 상봉한 소식은 이산가족의 아픔이 오늘날까지 이어진다는 사실을 잘 보여 줍니다. 갖가지 사연으로 헤어져 소식조차 알 수 없었던 가족을 만나고 울음바다가 된 뉴스나 신문 기사를 찾아보고, 동화 속에서 큰형님의 소식을 듣게 된 민제 할아버지의 마음이 어떨지 이야기해 봅시다.

한국 전쟁이 우리에게 끼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조사해 봅시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 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 2. 주어진 대로 글쓰기 또는 생각그물 지도 만들기

- 상황 글쓰기: 주어진 문장에 이어서 세 문장 이상, 이산가족의 아픔과 마음을 담아 글쓰기

예시 - “우리 가족은 한국 전쟁이 터지자 피란을 갔다. 그런데 기차표를 두 장밖에 구하지 못해 엄마와 나는 먼저 기차를 탔고, 아빠와 동생은 나중에 기차를 타고 와서 서울역에서 만나기로 했다. 먼저 도착한 엄마와 나는 서울역에서 아빠와 동생을 기다렸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았다. 그 뒤 우리 가족은…….”

● 생각그물 지도: 가운데 타원형의 원을 그려 '뒤주'라고 적습니다. 그리고 원에서 여러 개의 가지를 뻗어 동화 속에서 나온 역사적 사건을 써 봅니다. 임와화변(사도세자 사진), 5·18 민주화운동, 한국 전쟁, 임진왜란 등을 쓴 다음 다시 각각의 주제에 대한 역사적 내용을 조사해 생각그물 지도를 만들어 봅니다.

- ★ 어린이도서연구회 권장도서
- ★ 행복한아침독서 추천도서
-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선정 우수문학도서
- ★ 2009 어린이 평화책 선정
- ★ 인천서부교육청 권장도서